

산후 분노에 대한 서술적 문헌고찰

백서영^{1,2} · 정슬기^{1,3} · 김성해¹ · 김 수⁴ · 유호지^{1,5}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¹, 육군학병군사학교 학생², 제일병원 간호사³,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⁵

Postpartum Anger: A Narrative Review

Baek, Seoyoung^{1,2} · Jung, Seulgi^{1,3} · Kim, Sunghae¹ · Kim, Sue⁴ · Yu, Hojee^{1,5}

¹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²Student, Army Cadet Military School, Goesan

³RN, Cheil General Hospital, Seoul

⁴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⁵RN,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research on postpartum anger experienced by women after childbirth, through a narrative review. **Methods:** Articles published from 2008 to 2018 were searched in seven electronic databases using combinations of the terms 'anger', 'angry', 'aggress*', and 'postpartum'. **Results:** Ultimately seven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Six of the quantitative studies and one qualitative study were included and postpartum anger or anger was found to be measured in all six quantitative studies. Postpartum anger was influenced by hostility during pregnancy and women's dependence and self-criticism of women after childbirth. Attachment with parents in the past and affection between married couples in the present influenced the expression and management of anger.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postpartum anger was influenc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women, past experiences, current marital relations and social support. However, there was no study focusing on postpartum anger and related factors in domestic context. Thus, we suggest future studys which clarify the concept of postpartum anger and its measurement so that awareness of postpartum anger can be improved and mediation could be developed.

Key Words: Postpartum period, Anger, Aggressive, Aggress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며 이는 단순한 신체적 경험을 넘어 정신, 사회적 상호 작용과 인지 과정에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경험이다(Bae, 2002). 출산 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정서 또한 경험하면서(Agrati & Lonstein, 2016), 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는 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Jeong & Kim, 2005).

분노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향해 가장 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 중 하나로, 한 번 경험한 분노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Park, H. S., 2008). 연구에 따르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Galam-

주요어: 산후 분노, 산후, 분노, 화, 폭발

Corresponding author: Yu, Hojee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6300, Fax: +82-2-2227-8137, E-mail: jee0916@yuhs.ac

투고일: 2018년 5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6일

bos & Krahn, 2008), 이러한 여성의 산후 분노는 영아 및 유아 발달의 주요 위험 요소라고 하였다(Madigan, Moran, Schuengel, Pederson, & Otten, 2007). 또한, 부부 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분노가 높고 이는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인자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분노는 부부 갈등과 아동 학대의 매개변인이라 밝혀진 바 있다(Doh, Kim, Kim, Choi, & Kim, 2011). 이는 산후 분노가 산모와 가족의 건강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사회 통념 상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돌보기 위해 느끼는 고통은 대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희생적인 사랑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여성은 모성애가 부족한 나쁜 어머니로 낙인 되기도 한다. 출산의 고통을 ‘승고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미화시키는 사회 시선으로 인해 여성은 내면적인 갈등을 호소하고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Jeong, 2010).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신념은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여성 스스로 자신을 사회문화적 기준에 맞추게 한다. 자녀 양육의 책임자를 전적으로 어머니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에 내재된 유교사상이나 이념적 특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이른바 ‘현모’로 불리는 완벽한 모성 역할에 대한 강박관념의 틀에 놓여 이에 부응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겪게 된다(O'Reilly, 2010).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이 예전보다 많이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 후 사회활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아직까지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Go, 2017), 이는 여성의 산후 부정적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출산 후 여성은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로,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로 인해 어머니이기 전에 여성이자 한 주체로서 자아를 존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덮어두게 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여성의 정체성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산모를 중심으로 한 중재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시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 과정 및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분노의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돌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산모를 위한 정서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여성의 부정적인 정서 감정의 대부분이 슬픔, 불안 및 우울 반응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분노의 감정을 조사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 후 여성의 감정변화가 어떠한지, 특히 부정적 감정 중 산후 분노를 경험하는지, 산후 분노를 유발하는 선행요인 및 이로 인한 결과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이 경험하는 산후 분노를 다룬 국내·외 연구에 대한 서술적 문헌고찰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산후 분노 연구의 미흡한 점과 문제점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출산 후 여성이 경험하는 산후 분노에 대한 서술적 문헌고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 분노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산후 분노를 경험하는 출산 후 여성을 위한 간호실무 개선 및 중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후 분노에 대한 서술적 문헌고찰을 통해 문헌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산후 분노 측정도구를 확인하여 산후 분노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출산 후 여성이 경험하는 산후 분노에 대한 서술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론은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5.1.0 (Higgins & Green, 2011)과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Moher, Liberati, Tetzlaff, Altman, & Prisma group, 2009)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2. 문헌 검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를 이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내 DB는 KoreaMed,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외 DB는 PubMed, PsycINFO 및 Cumulative Index for Nursing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with Full Text로 총 7개의 DB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한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임상간호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등에서 관련 문헌을 수기로 검색하여 포함하였다.

검색어는 산후 분노라는 현상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되 산후 우울을 배제하기 위해 MeSH 용어를 확인한 후 선정하였다. 한글 검색어는 분노, 화, 폭발, 산후, 출산, 우울을, 영문 검색어는 anger, angry, aggressive, aggression, postpartum, depression을 사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을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식의 일례로 PubMed의 경우 ‘(((anger [Title/Abstract] OR angry [Title/Abstract] OR aggressi*[Title/Abstract])) NOT depression [Title/Abstract]) AND postpartum [Title/Abstract]’을 검색어로 입력한 후 인간 대상 연구로 한글 또는 국문으로 출판된 문헌으로 제한하였으며 출판년도는 ‘From 2008/05/01 to 2018 05/20’로 설정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81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자료 검색 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20일까지이며 한글 또는 영문으로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초 문헌 검색은 PubMed DB를 선정하여 4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연구자 간 자료수집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하였고, 이후 2명의 연구자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두 차례의 연구모임을 통해 검색과정에 합의하였다.

3. 문헌 선정 및 추출

본 연구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은 a) 최근 10년간 출판된 연구, b) 출산 직후부터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한 연구, c) 산후 분노, 화, 폭발 등의 부정적 정서에 관한 양적 및 질적 연구, 제외기준은 a) 산후 부정적 정서 중 산후 우울이나 정신 질환을 포함한 연구, b) 초록, 종설, 서신, 논평, 증례보고 등 원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c) 학위논문 등 peer review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회색문헌, d) 한글 또는 영문으로 출판되지 않은 문헌이다. 문헌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연구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차 선별한 후, 원문을 검토하여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문헌 선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 모임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문헌검색 과정에서 서술적 문헌고찰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다.

문헌관리 프로그램(EndNote)을 이용하여 중복 문헌을 정리한 후 선별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될 자료를 선별하였다. 문헌 검토 및 선정은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연구 모임을 통해 교차 검토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헌 검토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와 함께 원문을 확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최종 분석 논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은 서식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저자, 출판연도, 시행 국가, 연구설계, 표본 수를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산모의 연령, 산후 기간, 초산, 혹은 경산부 등의 출산경험이며, 산후 분노의 개념 및 특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문헌 선정 결과

초기 문헌 검색은 수기 검색으로 확인된 7편을 포함한 총 143편의 예비 문헌이 확인되었다. 중복 문헌 23편을 제외한 120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헌을 제거하여 최종 문헌을 선정하였다. 일차적으로 문헌의 제목을 검토하여 60편을 제외한 후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에서 postpartum women을 다루지 않은 연구 3편, anger/angry/aggressive, aggression 등 산후 분노 관련 부정적 정서를 다루지 않은 연구 37편을 제외하여 총 2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원문 검토를 통해 postpartum women을 다루지 않은 연구 8편, anger/angry/aggressive, aggression 등 산후 분노 관련 부정적 정서를 다루지 않은 연구 5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원문 검토는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연구자 간 불일치는 없었다.

2.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는 200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20일까지 약 10년간 산후 우울이나 정신 질환을 제외한 산후 분노, 화 등의 부정적 정서를 다룬 연구로써, 본 서술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문헌은 총 7편이었다. 총 7편의 문헌 중 양적 연구는 6편, 질적 연구는 1편으로 문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한국,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가 각 2편(28.6%)이었고, 독일, 호주, 벨기에에서 수행된 연구가 각 1편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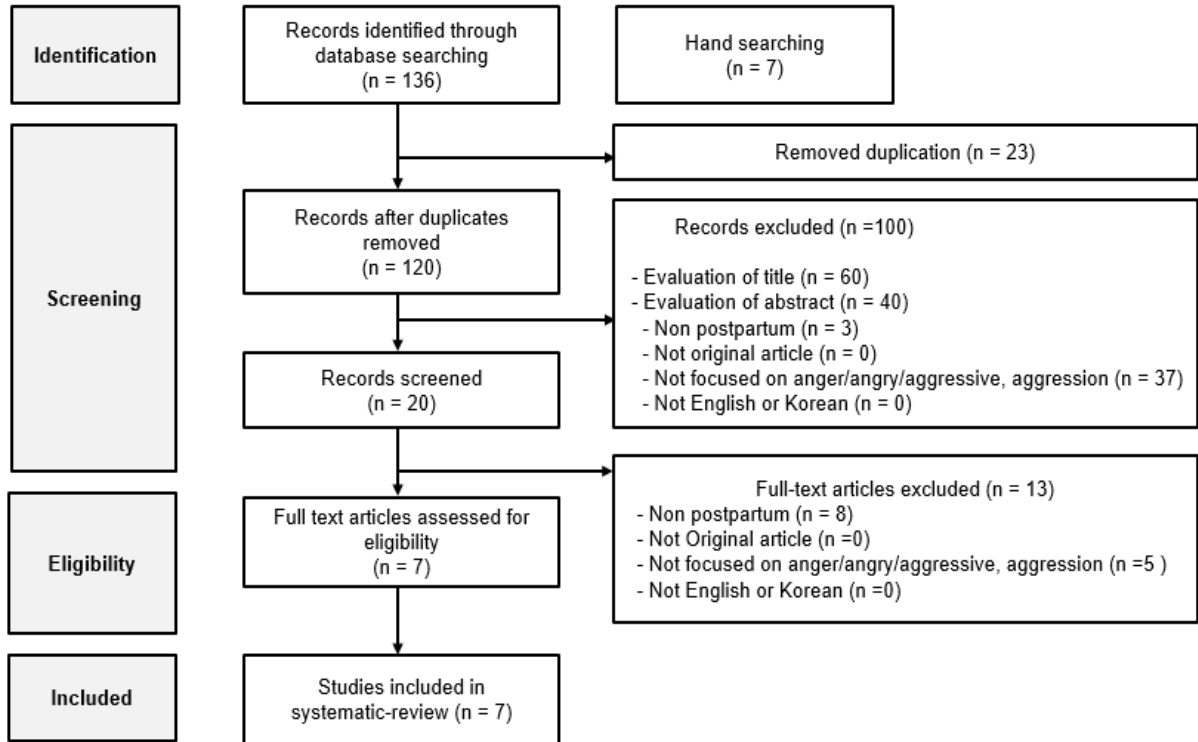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for this study.

다. 제목에서 ‘산후 분노’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헌은 오직 1편이며, 그 외 1편의 연구에서 제목에 ‘분노’를 명시하였고 나머지 5편의 연구는 문헌 내용에서 분노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수는 최소 77명에서 최대 395명으로 평균 17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 중 4편은 1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 연령은 평균 29.7세에서 33.1세로 평균 연령이 대개 30세 전후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 6편의 연구설계는 중단 연구 4편, 횡단적 단면 연구 1편, 무작위 대조 실험 1편이었다.

3. 산후 분노 측정도구 및 속성

산후 분노의 측정은 총 6편의 양적 연구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1편의 질적 연구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에서 사용된 6개의 도구 모두 설문이나 전화 인터뷰를 통한 자가 보고 방식에 의해 산후 분노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 중 3편의 연구에서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그 명칭은 The State-Trait Anger Inventory (Barr et al., 2014), Conflict Tactics Scale Revised (CTS2) (Sotskova, Woodin, & Gou, 2015),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Vliegen & Luyten,

2008)이었다. 나머지 3편의 연구에서는 도구 내 하위항목에서 분노를 측정하였으며 각 German vers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 (DES) (Behringer, Reiner, & Spangler, 2011), Postpartum Bonding Questionnaire (PBQ) (Macdonald et al., 2018), Korea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OMS-B) (Kim et al., 2014)을 사용하였다.

산후 분노를 측정하는 도구 중 The State-Trait Anger Inventory (Barr et al., 2014)는 하위 항목 없이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은 ‘나는 쉽게 화가 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도구로 CTS2 (Sotskova et al., 2015)는 5가지 하위 항목, 즉 정신적 분노, 신체적 폭행, 성적 학대, 상해, 협상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9문항을 8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분노 관련 문항은 ‘당신은 배우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나요?’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분노 측정도구인 STAXI (Vliegen & Luyten, 2008) 역시 5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태 분노, 특성 분노, 자신을 향한 분노, 타인을 향한 분노, 분노 통제 등으로 총 44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 내 하위 항목에서 분노를 측정할 도구 중 DES (Behringer et al., 2011)는 10가지 기본 감정을 하위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기쁨, 놀람, 흥미, 두려움, 슬픔, 분노, 경멸, 혐오,

Table 1. Analysis of Literature about Postpartum Anger/Aggression (N=7)

Source	Subjects/Participants	Design	Variables and measurements	Outcomes	Implication/Limitations (Critiques)
Sotskova, et a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N: 98 couples Mothers (Women): 98 (Age (M±SD): 29.98±5.49) Fathers (Men): 98 (Age (M±SD): 32.03±5.51) British Columbia, Canada Eligibility: The with their first child, living together, and over 17 years of age. 	A longitudinal stu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ychological partner aggression (Conflict Tactics Scale Revised, CTIS2) Hostility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AQ) Tendency to be overwhelmed (Partner Flooding Scale, FLO) Relationship satisfaction (Dyadic Adjustment Scale, D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men: hostility during pregnancy was significant longitudinal predictor of psychological aggression Men: flooding was a significant longitudinal predictor of psychological aggression Both: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ooding/hostility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study examined reports from both partners, which enhances the validity of the data. There are other mediators (e.g.,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contextual factors,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potentially missing from the model In terms of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s who come in contact with pregnant couples or new parents may do well to identify psychological aggression as a target for prevention because psychological aggression appears to be quite stabl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does not necessarily decline on its own.
Vliegen, & Luyten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N: 299 Experimental group: 55 (Age (M±SD): 29.73±4.68) Control group: 244 (Age (M±SD): 30.19±3.90) Belgium Criteria for experimental group Eligibility: Mothers meeting DSM-4 criteria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 postpartum onset Exclusion: Schizophrenia, other psychotic disorders, bipolar disorders, PTSD, severe somatic pathology, and acute suicidal risk Criteria for control group Eligibility: Non-depressed young community mothers Exclusion: Current mood or other psychiatric disorder, and a history of psychiatric disorder 	Cross-sectional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pendency, Self-Criticism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 Depression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State anger, trait anger,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tpartum depression: associated with elevated levels of state and trait anger and anger-in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nger: influenced by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Dependency: associated with state anger in non-depressed mothers; and highly dependent mothers directed their anger significantly more towards the self and less towards others Self-Criticism: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trait anger, low control of anger, and high levels of anger towards the self and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Even if there are 244 normal controls compared to 55 depressed mother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 are focused on the depressed mothers.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is missing. Research conclusion without an implication or solution for depressed mothers could only provide a stigma to them.
Barr, et a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N: 98 Experimental group: 48 (Age (M±SD): 32.3±4.0) Control group: 50 (Age (M±SD): 33.1±5.4) British Columbia, Canada Normal primiparous postpartum mothers with healthy infants less than six months of ag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aternal responses to a listening to a recorded prolonged infant crying or cooing bouts for 10 min	<ol style="list-style-type: none"> Independent vari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fant crying and cooing stimuli Dependent vari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ernal frustration (CVAS, Continuous visual analogue scale) Maternal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 (Pre listening questionnaires) Negative mood (Edinburg postnatal depression scale)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ventory) Empathy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Post listening questionnaires) The custom-designed post-listening questionna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longed crying induces increasing frustration over time Negative mood is of interest because of the prevalence of postpartum depression following the newborn period that coincides with the developmentally normal increase in infant crying As with the correlations from pretest scores to the mean modal responses, there were no consistent significant correlations from pretest negative mood, anger and empathy scores to individual parameter values Inconsolable crying bouts are highly associated with postpartum negative mood Trait anger is of interest because of the known relationship between early increases in infant crying and abusive head trauma in which otherwise normal frustration responses may develop into anger and elicit ab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is shown that negative and positive mood to infant crying is a natural phenomenon, and these emotional chang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individuals.

Table 1. Analysis of Literature about Postpartum Anger/Aggression (Continued)

(N=7)

Source	Subjects/Participants - Study setting country - Inclusion & exclusion criteria	Design	Variables and measurements	Outcomes	Implication/Limitations (Critiques)
Behringer, et al. (2011)	N: 77 couples - Participating mothers: 77 (Age (M±SD): 30.7±4.6) - Partners: 77 (Age (M±SD): 33±5.3) - Northern Bavaria, Germany (Allwhite European) - Inclusion Criteria: Primipara in the 8th or 9th month of pregnancy	A longitudinal study	-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past relationships with primary caregivers (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 - Attachment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the current couple relationship (CRI: Current Relationship Interview) - Maternal emotionality (DES: Differential Emotions Scale, DAS: Differentielle Affekt Skala)	- Secure attachment representations facilitate the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s. - The emotional response to a major life event consists of a sequence of responses to stressful micro-events, and that the quality of this emotional response is determined by an individual's attachment status. - Representations of past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parents govern expression and management of anger, whereas current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the couple relationship facilitate a clearer expression of sadness and anxiety.	- This study could not assess fa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s. - They did not conside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g., economic or education state) of parents. - Attachment representation in the past and current relationship are not modifiable factor. - In this situation, What kinds of intervention would be helpful to parents?
Macdonald, et al. (2018)	N: 395 (606 infant offspring) - Mothers (Women): 395 (Age (M±SD): 32.3±1.8 at child birth) - Australia - Eligibility: Live births reported during screening phase (2006-2013)	A longitudinal study (cohort study)	- Preconception exposure: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the bond with their mothers and fathers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 Postnatal outcome: difficulties in maternal bonding at 2 months and 12 months which could assess the risk of postnatal infant abuse or neglect (Postpartum Bonding Questionnaire, PBQ)	- Adolescent-parent bonding problems were strongly predictive of women's subsequent bonding problems with infants. - Impaired postpartum maternal bonding was predicted by adolescent reports of low paternal care (12 months) and high maternal control (12 months). - High maternal control and low paternal control also predicted impaired postpartum bonding (2, 12 months), caregiving anxiety (2, 12 months), and rejection/anger (12 months).	- The strength of associations suggests that interventions should begin well before pregnancy. - Socio-demographic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 Parental bonding in the past is not modifiable factor and it is difficult to mediate in the present. It is useful implication, but we could not find the implication for nursing.
Kim et al. (2014)	N=66 Age: 26-34 year: 54 (81.8%) 35-39 year: 12 (18.2%) - Korea Eligibility: Age at 18-45, Mothers who delivered full-term (>37 week) infants by natural childbirth without complication or health problem, and who are planning to breastfeed. Exclusion: Mothers who have psychological problem before the pregnancy, who have disease or take medicines which could impact on the immune system, and who cannot breastfeed.	A longitudinal study	Breastfeeding adaptation (Breast Feeding adaptation scale, BFAS) Immune substances in breastfeeding (secretory IgA, TGF-β2) Mood states (Profile of Mood States-Brief (POMS-B)) Childcare stress (Childcare Stress Inventory, CSI) Sleep satisfaction (Questionnaire about the sleep satisfaction and sleep disturbance) Social support (Scale about the emotional support and practical support)	- Scores for the breastfeeding adaptation scale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child care stress, mood state and social support. - Mother's ang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IgA in colostrum ($p < .01$). - Immune substances of breastmilk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ime for milk collection ($p < .001$, TGF-β2, $p = .003$). -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reastfeeding adaptation could be explained 59.1% by the type of breastfeeding, childcare stress, the Profile of Mood States, emotional support and sleep quality ($F=16.67, p < .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rationale to emphasize that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nursing interventions that reduce maternal postpartum stress and improve emotional support and sleep satisfaction are necessary for breastfeeding adaptation.
Jeong (2010)	A qualitative study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ore the possible way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for those who experience delivery and infant care, by drawing on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Contents of anger during the childbirth and postpartum Why only the woman should suffer in the process of giving birth Social atmosphere that is taking the suffering of women for granted and rather beautifying it in the name of "the love of the sublime mother" An oppressed rage against a born baby threatening mother's life To help women who are delivering and rearing babies, belows are needed. - Caring and counseling are based on respecting the experience of women and begin with women's experiences, stories, and perspectives The study of living human web has four main functions: resisting, empowering, nurturing and liberating - Sensitiv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hat women experience in this society is important	- This study conducted to make pastoral counseling for mothers of new born babies. However, through the women presented in the case of this article, we can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anger in the childbirth and the discussion includes implication that could be useful in nursing.	

Table 2. Characteristics of Measurement Assessing Postpartum Anger/Aggression

(N=6)

Measurements	Administration mode	Contents			Source
		Total item	Subscale (number of items)	Scoring/Range	
Conflict Tactics Scale Revised, CTS2	Report acts that they have committed towards a partner (perpetration), as well as act committed by a partner towards them (victimization) in a 1-year period	39	Five subscale - Psychological aggression - Physical assault - Sexual coercion - Injury - Negotiation	- 8 points scale - Ranging from 0 to 7 (never happened, happened 1 time, 2 times, 3~5 times, 6~10 time, 11~20 times, more than 20 times, or has happened, but not in the time period in question)	Straus, Hamby, Goney-McCoy, & Sugarman, 1996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Self-report	44	Five subscale - State anger - Trait anger - Anger directed towards the self (anger-in) - The expression of anger towards other people or objects (anger-out) - The control of anger (anger-control)	- 4 points scale - Ranging from 'almost never' to 'almost always'	Spielberger, 1996
The State-Trait Anger Inventory	Self-report of the typical experience with anger	10	N/A	- 4 points scale - Ranging from 'almost never' to 'almost always'	Forgays et al., 1997
German vers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 DES* (Differentielle Affekt Skala, DAS)	Self-report of maternal emotion experience (frequency of each emotion over the past week)	30	10 fundamental emotions - Joy, surprise, interest, fear, sadness, anger, contempt, disgust, shame, and guilt	- 5 points scale - Ranging from 0 to 4	Merten & Brunnhuber, 2004; Merten & Krause, 1993
Postpartum Bonding Questionnaire, PBQ*	Self-report of difficulties in maternal bonding	25	Four subscale - General impaired bonding - Rejection and anger - Caregiving anxiety - Risk of abuse	- 6 points scale - Ranging from 0, 'always' to 5, 'never'	Brockington et al., 2001
Profile of Mood States-Brief (POMS-B)* (Korea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OMS-B)	Self-report	30	Six subscale - Tension, depression, anger, vigor, Fatigue, confusion	- 5 points scale - Ranging from 0 'almost never' to 4 'almost always'	Yeun & Shin-Park, 2006; McNair, 2003

*Measurement not just for anger. It contains subscale about anger.

수치심, 죄책감 등으로 총 30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다른 도구로 PBQ (Macdonald et al., 2018)는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4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 유대 장애, 거부와 분노, 돌봄 불안, 학대의 위험 등으로 구성되며 총 25개의 문항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거부와 분노에 대한 문항은 '나는 아기에게 화가 난다',

돌봄 불안 관련 문항은 '나의 아기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학대의 위험 관련 문항은 '나는 아기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POMS-B를 한국형으로 변안한 도구인 K-POMS-B (Kim et al., 2014)는 총 30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긴장, 우울, 분노, 활기, 피로, 혼돈 등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분석 문헌의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문헌 고찰한 총 7편의 연구 중 산후 분노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단 2편이었는데 제목에서 산후 분노, 혹은 분노를 명시한 2편의 양적 연구가 해당되었다. 산후 분노는 산후 우울과도 연관이 되는데, 상태 분노나 특성 분노 및 자신을 향한 분노가 높은 경우 산후 우울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산후 분노는 출산 후 여성의 의존성과 자기비판 경향의 영향을 받는데, 의존성은 우울감이 없는 여성의 상태 분노와 관련이 있으며 의존성이 매우 높은 여성들은 분노를 타인 보다는 자신을 향해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비판은 특성 분노가 높거나 분노 통제 정도가 낮은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노 표출이 모두 높은 경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liegen & Luyten, 2008). 채택된 7편의 연구 중 유일하게 배우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함께 분석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 갖는 적대심이 심리적인 분노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압도되는 감정(flooding)이 그 예측요인이라고 하였고,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그 매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otskova et al., 2015).

문헌의 내용 안에서 부분적으로 산후 분노를 다룬 연구는 총 5편이었으며 양적 연구 4편, 질적 연구 1편이 이에 해당한다. 신생아의 오랫동안 계속되는 울음이 부모의 좌절을 야기하는데, 신생아의 울음과 학대성 두개관내 출혈(Abusive Head Trauma, AHT)의 알려진 관계성 때문에 특성 분노가 중요하며, 좌절 반응이 분노로 발전되거나 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Barr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과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과거 부모와의 애착 관계 경험은 분노의 표현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부부 사이의 애착 관계는 슬픔과 불안감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hringer et al., 2011). 과거의 유대감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른 중년 연구에서는 과거 여성의 청소년기 시절 부모와의 유대 문제는 이후 여성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녀의 아이와의 유대 문제에 강한 예측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여성이 어머니로부터 강한 통제와 아버지로부터 약한 통제를 받은 경우 아이와의 유대 관계에서 위험이 상승되었는데, 특히 아이에 대한 분노와 거부의 감정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donald et al., 2018). 모유수유 적응에 대한 모체 내 면역물질의 영향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적응 정도는 여성의 스트레스, 기분 상태, 사회적 지지와 강

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 또한 여성의 정서적 요인이 면역성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모유 내 면역물질을 분석하였는데, TGF- β 2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양육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실제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모유수유 적응을 잘할수록 함량이 많으며, sIgA는 여성의 우울감이 강할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에서는 분노가 모유 내 sIgA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편의 질적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출산 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었다. 희생과 고통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구조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출산의 과정이 여성에게는 기쁨 뿐 아니라 때로는 고통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숨김 없이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Jeong, 2010). 또한 공동체적 지지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고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한 변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대상자 수는 평균 172명, 평균 연령은 30세 전후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4세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출산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35세 미만의 경우 감소하였고 35세 이상 고령 여성에서는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이에 따라 여성의 출산 연령 증가 및 여성들에게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다양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 출산 여성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는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산후 분노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을 심도 있게 다루어 효과적 중재전략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헌 고찰 결과 아직까지 산후 분노를 다룬 국내·외 연구는 모두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특히 한국 특유의 사회적인 배경과 정서를 반영하는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와 헌신적인 어머니 역할을 강요하는 정서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 7편 중 산후 분노를 직접적으로 명

시하고 다룬 논문은 2편이었는데, 산후 우울을 다룬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연구방법도 다양했던 것에 비하면 산후 분노라는 감정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많이 인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 분노를 다룬 연구의 대부분은 서술적 연구였으며, 산후 분노를 주요 요인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산후 분노의 속성을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양적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산후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6개의 도구 중 3개는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였고, 나머지 3개의 도구에서는 도구 내 하위항목에서 분노를 측정하였다. 산후 분노에 대한 의미 기술은 1개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Sotskova (2015)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부모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분노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대인관계와 연관이 있으며, 이전에 분노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임신 그 자체가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분노가 발생하는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분노 모델(The General Aggression Model, GAM)을 활용하여 산후 분노의 선행요인을 설명하였는데, 개인의 특성(hostility and flooding),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식(relationship satisfaction)은 생애주기의 특정시기인 부모 전환기에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산후 분노의 측정도구는 Conflict Tactics Scale Revised (CTS2)로 1년간 자신이 배우자에게 행하는 행위(perpetration),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행위(victimization)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도구는 해당 연구의 연구자가 서술한 산후 분노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도구라고 판단된다. The State-Trait Anger Inventory,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분노를 측정하는 도구이며, 산후 분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위항목을 분석하였을 때 출산 후 상황적 맥락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도구 내 하위항목에서 분노를 측정한다면 나머지 3개의 도구는 각 German vers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 (DES), Postpartum Bonding Questionnaire (PBQ), Korea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OMS-B)이었다. 다양한 감정을 측정하면서 분노의 발생 유무를 측정하였는데, 분노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다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 도구 내에서 분노의 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산후 맥락에서의 분노를 측정하는 방법은 도구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였으며, 6개의 도구 중 산후 분노의 상황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는 1개였고, 산후 분노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가 이루어진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6개의 도구의 하위 항목을 합성하여 공통적 속성을 도출하기에

는 다소 제한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산후 분노에 대한 개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후에 느끼는 분노를 일반적 분노와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분석 문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여성이 겪게 되는 산후 분노라는 감정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되는데, 여성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 뿐 아니라 과거 경험에서부터 현재 여성이 맺는 부부 관계나 사회적 지지까지 여성 내부적인 요인과 여성을 둘러싼 모든 외부적인 요인이 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과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나 유대의 결여 혹은 임신 기간 중 적대심 경험 여부, 부부 관계 만족도가 출산 후 부정적인 감정, 특히 좌절이나 분노 및 거부 반응 등과 연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신생아의 울음소리와 같은 상황적 요인은 분노의 촉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 전·중, 출산 후 기간에 걸쳐 가족과의 관계, 감정 경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 출산 후 분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여성들의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체계적 관리와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영향 요인은 현 시점에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일차 예방을 강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산후 분노 감정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역설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 또한 산후 분노의 감정을 겪을 수 있고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남성과 여성의 산후 분노의 매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산후 여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정책 형성 시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의 가족가치관, 즉 결혼·출산·자녀관이 전통적인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성이 느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Sohn & Kim, 2010). 여성의 이러한 감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인식 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고찰을 위해 다룬 연구들은 그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구대상, 방법, 목적 및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각 연구의 결과를 그 자체로 서로 비교·분석하

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일련의 연구 분석을 통해 산후 우울과 구별되는 산후 분노라는 개념의 활용에 대해 최근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도구를 확인함으로써 아직까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산후 분노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산후 분노의 영향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산후 분노 증재를 위한 연구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후 분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를 확인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정의, 도구 및 변수 확인을 통해 산후 분노의 속성 규명을 초기 목표로 하였다. 출산 과정 및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 특히 정상적인 반응 중 하나인 산후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나아가 여성이 이를 건강하게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와 증재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문헌 고찰 결과 아직까지 산후 분노는 그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 분야에서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재하였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술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제한된 범위의 선행연구 내에서의 산후 분노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산후 분노 도구의 하위 항목을 통해 개념의 일부 속성을 확인하며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출산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증재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외에도 개념 및 도구 개발, 실험연구 등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산후 분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개발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과 선행 요인 및 결과를 규명한 뒤 현상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요인 분석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현존하는 단순 자가보고 방식의 분노 측정도구를 보완하고 이를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도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후 분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도구 개발은 산후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 감정을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산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분노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분노와는 달리 대인 관계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속성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확인되는 산후 분노 현상에 대한 반복 검증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산후 분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분노 감정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 매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산전 관리 단계에서 산후 분노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여성이 심리사회적 정서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증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실무에의 적용하고 검증하는 작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grati, D., & Lonstein, J. S. (2016). Affective change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influences of genetic and experiential factors. *Hormones and Behavior*, 77, 141-152.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16/j.yhbeh.2015.07.016>
- Bae, J. Y. (2002). Evaluation of web-based healt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health medical technology promotion business*.
- Barr, R. G., Fairbrother, N., Pauwels, J., Green, J., Chen, M., & Brant, R. (2014). Maternal frustration, emotional and behavioural responses to prolonged infant crying.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7(4), 652-664.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16/j.infbeh.2014.08.012>
- Behringer, J., Reiner, I., & Spangler, G. (201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past and current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emotional experience across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2), 210-219.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37/a0023083>
- Doh, H. S., Kim, M. J., Kim, S. W., Choi, M. K., & Kim, J. H. (2011). The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and maternal anger on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32(5), 85-101.
- Galambos, N. L., & Krahn, H. J. (2008). Depression and anger trajectori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5-27.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458.x>
- Go, S. H. (2017). Awareness of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and knowledge of high-risk pregnancy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20(2), 67-79.

- Higgins, J. P., & Green, S. (Eds.). (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London, UK: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1 [cited 2018 May 21]. Retrieved from <http://handbook-5-1.cochrane.org/>
- Jeong, M. H., & Kim, J. 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blu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1), 38-45.
- Jeong, Y. D. (2010). Pastoral counseling for mothers of new born babies: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Women's Studies*, 25, 113-133.
- Kim, E. S., Jeong, M. J., Kim, S., Shin, H.-A., Lee, H. K., Shin, K., et al. (2014). Maternal psychosocial factors that affect breastfeeding adaptation and immune substances in human milk.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 14-28. Retrieved from <https://doi.org/10.4069/kjwhn.2014.20.1.14>
- Macdonald, J. A., Youssef, G. J., Phillips, L., Spry, E., Alway, Y., Patton, G. C., et al. (2018). The parental bonds of adolescent girls and next-generation maternal-infant bonding: Findings from the victorian intergenerational health cohort study.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1(2), 171-180. <https://doi.org/10.1007/s00737-017-0778-x>
- Madigan, S., Moran, G., Schuengel, C., Pederson, D. R., & Otten, R. (2007). Unresolved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disrupted maternal behavior and disorganized attachment in infancy: links to toddler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10), 1042-1050.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7.01805.x>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 Prisma Group.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icine*, 6(7).
- O'Reilly, A. (2010). *Twenty-first century motherhood: Experience, identity, policy, agen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rk, H. S. (2008).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ir anger tendency on their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on University, Gumi.
- Sohn, S. Y., & Kim, E. (2010).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4(4), 169-200.
- Sotskova, A., Woodin, E. M., & Gou, L. H. (2015). Hostility, flood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redicting trajectories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ggressive Behavior*, 41(2), 134-148.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02/ab.21570>
- Statistics Korea. (2017).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Birth Statistics,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16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3/index.-board
- Vliegen, N., & Luyten, P. (2008). The role of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partum depression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1), 34-40. <https://doi.org/10.1016/j.paid.2008.02.015>